

# 불교소설 침체의 늪 언제 벗어날까

결측한 불교 소설은 어떤 포교활동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갖는다. 80년대엔 김성동의 <만다라>(1978)나 한승원의 <아제아제 바라아제>(1985)를 읽고 출가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간 젊은이가 한 둘이 아니었다. 고은의 <화엄경>(1991), 남지심의 <우담바라>(1987), 최인호의 <길 없는 길>(1989) 등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대표적인 불교 소설들이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몇몇 책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불교 소설을 찾기가 쉽지 않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불교 소설 출간 권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성낙주의 <차크라 바르틴>(1995)이나 김성동의 <꿈>(1999), 최근 나온 한승원의 <초의>(2003) 등이 있긴 하지만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불교 소설 왜 안나오나  
오늘날 문단은 인터넷과 영상매체에 밀려 설 자리를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 소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불교 소설은 이 같은 어려움에 더해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천박'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의 몇몇 작품을 제외하곤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터라, 설명 책이 출간된다 해도 불교계에 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중사 윤창화 대표는 "현재 불교 소설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불교 소설'이란 정의도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다"며 "작가들이 불교 소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가 불교 소설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꼭 불교 신자가 쓰거나 불교를 소재로 삼아만 불교 소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가 불교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불교

문인과 학자, 독자들 사이에 불교 소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작가들도 자연히 창작 의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해마을 손흥기 문화과장은 "불교 창작소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평론가나 학회가 없다"는 점을, <불교문예> 문장길 편집장은 "그간 일반 소설에 대한 평론은 많았지만 불교 소설을 주제로 발표되는 평론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각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미 발표된 불교 소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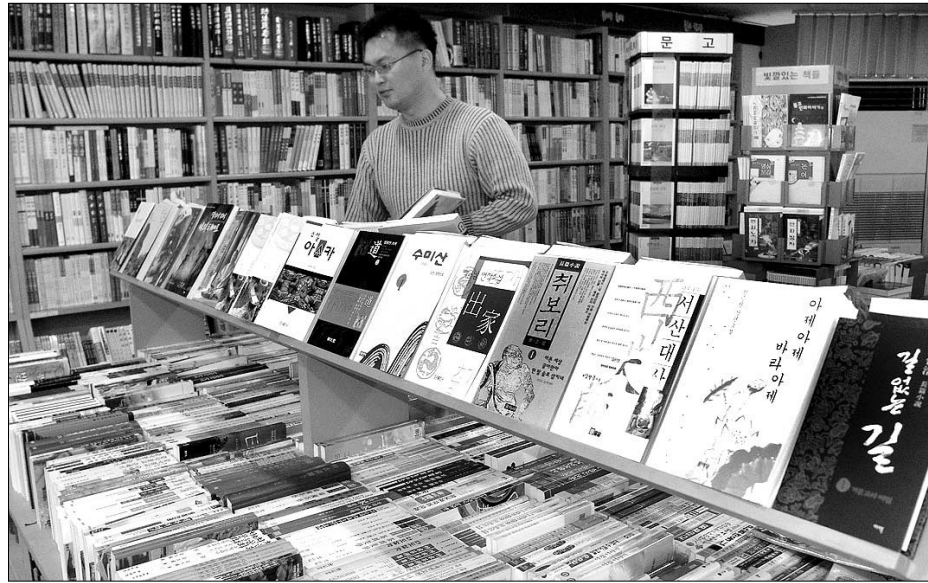
불교계 출판사들의 불교 소설 외면도 빼놓을 수 없다. 고질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교계

## 영상매체에 밀리고 교계 무관심에 '위축일로'

## 평론 활성화·공모전 확대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출판사들은 얼마나 수익을 낼지 알 수 없는 불교 소설 출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간 <불광> 남동화 편집장은 "불교 소설의 필요성과 파급력은 인정하지만 재정문제 등 여러 여건상 출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부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작가들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출간된 불교 소설 중에는 단순히 고승의 전기나 불교 설화를 소설적 형식으로 재구성한 논픽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설가 성낙주씨는 "<차크라 바르틴>을 쓰기 위해 경전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15년 이상의 습작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요새 출판되는 불교 소설 중에는 집필 시간이 짧고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설가 남



불교소설은 큰 파급력을 갖고 있지만 독자의 외면으로 점점 출판권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지심씨 역시 "단순히 불교에서 소재를 끌어다 쓰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부처님 사상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작가들 만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성작가들을 위해 신인과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김성동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에 신간 장편소설 <마하 신돈>의 집필동기와 줄거리를 올리고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

기존에 발표된 작품 중 불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작품성 높은 소설을 발굴하거나, 해외의 불교 소설을 번역·출간함으로써 불교 소설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남동화 편집장은 "해외 불교 소설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 국내 불교 소설 출간 붐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밖에 좋은 작품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창조 되어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단이나 불교문화단체 등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나 <우담바라>가 각각 영화화 되어 성공을 거뒀지만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한 예는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 소설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 문인들은 "비록 불교 소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불교는 삶의 본질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언제나 소설에 매력적인 주제를 제공해 왔다"며 "적절한 지원과 관심만 기울이면 불교 소설의 중흥기는 다시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비 기자 renyu@buddhapia.com

### ◇활성화 방안

출판 전문가들은 불교 소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가들이 궁극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결국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불교 소설이 아니라 진정한 불교 사상을 담은 소설을 잉태하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인 불교 작가 발굴해낼 수 있는 불교 소설 공모전과 배출된 문인들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불교 소설을 공모하는 곳은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현대불교신문협회의 불교문예 공모전 단 두 곳. 문장길 편집장은 "불교 언론사와 잡지사가 한 번씩이라도 공모전을 주최하면 작가들과 불자들이 불교문학작품에 쏟는 관심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 눈높이 경전 시리즈

부산 금호사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경들을 알기 쉽게 강의해온 대인 스님의 불교경전 시리즈가 출간됐다.

<알기 쉬운 불교강좌 상, 하> <초심자들을 위한 금강경 상, 하> <재미있는 반야심경 <다시보는 화엄경> <함께 하는 천수경> <아름다운 법화경 상, 하> <마음을 여는 예불문> 등 제목부터 마음을 끄는 대인 스님의 불경 시리즈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불교 경전들을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일목요연한 용어 설명까지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각 권 경전 이해를 돕는 기초용어, 경전의 개요, 구성을 먼저 살피고, 원문해석과 주석 등으로 집중탐구까지 이어지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총 10권의 불교경전 해설서에는 영상 시대 7개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부록 영상 시디는 한국과 중국의 아름다운 산사 풍경을 배경으로 경전의 원문과 한글을 함께 수록했으며 도문 스님의 청아한 독경과 어울려 일반인들이 쉽게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불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전도 수록됐다.

현재 서운암과 금호사를 오가며 정진 중인 대인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며 "불경에 담긴 참 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 경전 시리즈  
해설출판사  
전 10권  
각권 1만원

##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2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 진 태	학 고 재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 시 아 문
4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 솔
5	윤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6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7	돈황본 육조단경	성본 스님	한국문화연구원
8	천수경 천수신앙	해국 스님	효 립
9	말씀 부처가 보인 길	청화 스님	이 트 아 침
10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 립 원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겁의 체증을 통해 깨닫게 해주려는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체원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갈로맘으로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org  
☎ 02-522-0122, 011-785-0122

**군포교 25년 발자취**

명당구리 부처님 자광 스님 지음 | 도파인사 | 9천5백원

"나는 암만 생각해도 명당구리다.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나 세속의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초승달고 맵시도 없는 딱딱 옷 밖에는 입지 못하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뜰 뜰 먹고 곡식 까먹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스스로를 '명당구리'라 부르는 자광 스님이 회고록 <명당구리 부처님>을 펴냈다.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한 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포교를 25년간 일궈 온 스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1993년 군승살상이 된 후 군승의 정원을 늘인 일이나 지원이 끊겨 중단된 교회 신축 공사를 대신 맡아 마무리한 일 등 군 포교 일선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화들을 볼 수 있다.

달마대사와 혜능 스님, 지엄 스님, 서산 대사 등 수행에 '명당구리' 처럼 매진한 선사들의 수행담을 엮은 '명당구리 스님들 다 모였네'와 자광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명당구리 금강경'도 소개된다.

여수령 기자 snoooy@buddhapia.com

**명쾌한 '법화경' 해설서**

법화경의 세계 히라가와 아키라 지음 | 혜능 스님 옮김 | 부다가야 | 1만원

일본 불교학의 대두인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법화경 강의를 책으로 엮은 <법화경의 세계>가 해인사 윤원장 혜능 스님의 번역으로 출간됐다.

1988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강의된 내용을 체계해 엮은 이 책은 '법화경에 대한 더 이상의 명쾌한 해설은 없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법화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해설서.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는 동경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교수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

승불교사상사, 교단사, 계율학에 폭넓은 연구 성과를 남기고 2년 전 작고한 일본의 대표적 불교학자다.

책을 번역한 혜능 스님은 '<법화경>은 부처님이 누구든 불자는 누구인가를 극명히 밝히고 있다'며 "시비와 회노애락의 불길에 휩싸인 삶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영원의 삶을 살라고 일깨워 주는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싶어 번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사판 화엄경**

출간 2주만에  
교보베스트 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살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속속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지화상을 나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해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정점이 된 <영원한 대지유인>에 대해 주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딱 한 욕(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끝째'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1957년 태어나 중등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책 "불교경전총문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계승 불이 성법스님 지음/신국문/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 判釋: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 02.747.7033 / fax. 02.747-7034